



'2011 치킨 페스티벌' 둘러보기 '구구절절' 닭이야기

2011 치킨 페스티벌의 사전 이벤트로 진행됐던 '구구절절 닭이야기'. 직장, 학교 등에서 닭에 얽힌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에피소드 중 10점을 선정,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치킨을 배달해 드렸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선정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go go!!



일석이조 닭고기

정순옥(jungso0915@hanmail.net)

“어서 와요. 날이 춥죠?”

“그러게. 날이 풀렸다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에게서는 꽃샘추위가 느껴졌다. 남편이 손을 씻는 동안 나는 부지런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이네? 애들은?”

“애들 뭇은 남겨 두었어요. 어서 드세요.”

남편은 자리에 앉아 맥주를 반주 삼아 닭볶음을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비롯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런 남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받아주며 시간을 함께 했다.

우리 집에서 닭은 주 요리이다. 백숙은 기본에 닭볶음탕, 찜닭, 삶은 닭야채볶음, 닭죽, 가끔은 후라이드치킨까지...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볼 때 평균 두 세 마리의 닭을 꼭 사야 한다. 이렇게 닭을 많이 먹게 된 이유는 남편 때문이다.

남편은 마흔 살 무렵부터 풍치 때문에 고생을 하더니 몇 년 전부터는 틀니를 해야 할 정도로 이가 부실하다. 그러니 딱딱한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나마 김치 같은 야채 종류는 잘게 썰어서 먹어야 한다. 남편은 원래 고기를 좋아했는데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해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했었다. 그렇다고 바깥일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만도 없었으나...

‘닭고기는 껍질만 벗기고 요리하면 완전 식품’이라는 말에 다른 무엇보다 폭 익히면 부드러워 남편이 먹기에도 좋았고 인삼을 비롯해 다른 재료와 함께 요리하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의 주식은 닭고기가 되었고 든든한 영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가끔은 아이들도 함께 먹으며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아빠, 저 배고파요. 한 점만 주세요.”

“그래, 어서 오너라.”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작은아이는 가방을 내려 놓지도 않고 남편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엄마,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닭을 두 마리씩만 먹어도 한 달이면 열 마리, 일 년이면 백 마리가 넘네요? 와! 저의 농장 수준인데요?”

“정말 그렇구나.”

“이럴 바에는 아예 닭을 키우는 게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나중에 나이들면 시골에 내려가서 닭 키우며 사신다는 구나.”

“정말이에요? 아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닭들이 아빠가 자기 조상을 어머마하게 드셨다는 걸 알지 못하게 말이에요.”

“뭐라고? 허허허!!!”

아이의 말에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고3화이팅!

안현자(hjbless0113@hanmail.net)

올해 ‘대학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1년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매일 야간자율학습에 주말까지 학교에 가야 하는 현실에 아들이 벌써부터 지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제 1년도 채 안남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추억거리 하나,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수험생의 삶에 한 줄기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고 글 올려봅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반 친구들 모두 영양만점 치킨 먹고 힘내서 다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맛있는 치킨 배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고3 파이팅!



지난 4월 6일 속초고등학교로 치킨 15마리가 배달되었다.



치킨 is Love

김민아(a_min_nim@naver.com)

‘앵? 치킨이 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09년 더위가 막 시작될 무렵 나와 내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사랑이었다.

그때는 한참 동아리 MT 준비+시험기간으로 거의 일주일이 넘게 날밤을 샀던 시기였다. 게다가 동아리 규모도 꽤 크다보니 전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까지 해야 했는데 다들 말은 안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쳐가고 있었을 때였다. 하지만 그누구도 ‘힘들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나만 힘들게 아니었기 때문. 내가 만약 ‘힘들다’라는 말을 꺼내게 되면 누군가가 내가 지고 가는 짐을 나눠서 더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동지들을 생각해 아무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말만 안하는 거지. 다들 얼굴에 ‘피곤’이라는 두 글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점점 짐을하게 가라앉았다.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MT 준비를 묵묵히 했었다.

그때 동기이지만 재수해서 나이가 우리보다 많았던 왕언니가 아이디어를 냈다. 여자들에게 비해 힘쓰는 일까지 도맡아하는 남자동기들을 위해 삼계탕을 만들자는 것. 삼계탕을 먹어보기만 했지 한 번도 만들어본

일이 없던 우리들은 아이디어에 찬성했지만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단 닭 고르기부터 들어갈 재료사기, 손질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맛을 내기까지 상상 초월이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도 우리 여자동기들은 곳곳하게 몰래 이벤트를 준비했다. 시장에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엄마와 시장 아주머니들로부터 삼계탕 만드는 비법(?)까지 전수받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다행히 우리 같은 초보요리사들을 위해 닭고기는 적절하게 손질되어 포장되어 있었고 속재료까지 한 팩에 다 들어 있었다. 그렇게 여자동기들은 아무 내색 없이 홍보공연이 끝나는 날 저녁을 다테이로 잡았다.

드디어 절정의 날. 남자동기들이 짧은 연극으로 된 홍보공연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들어서서는 순간 지친 몸을 힘껏 일으키는 삼계탕 냄새가 회의장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남자동기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했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고마움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었다. 한 사람당 한 마리씩 푸짐하게 퍼주고 여자동기들은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정신없는 삼계탕 만들기와 깜짝 응원 이벤트가 마무리 될 때쯤 초연중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와 함께 치킨 배달부의 모습’이 보였다. 바로 남자동기들이 주문한 치킨이었다. 지적있을 여자동기들을 생각하며

이벤트를 생각하던 중 회의할 때 먹으려고 몰래 치킨을 주문했던 것이었다. 사실, 그날 삼계탕을 만드느라 집안의 냄비란 냄비는 총 동원되어 저녁밥을 먹지 못한 여자동기들이 많았다.

“우와~” 하는 갑탄과 함께 여자동기들도 그때만큼은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야식을 먹었던 것 같다. 각자 힘들어하면서도 서로를 생각했던 그날. 우리는 모두 그날을 기념하며 핸드폰 바탕화면에 한참동안이나 ‘치킨 is Love’라고 써 놓고 다녔다. 동아리 MT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말이다.

3년이 되어가는 옛날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난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던 그때 그 모습이 졸업 후 뿔뿔이 흩어져도 연락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준 14마리의 닭들이 참으로 고맙다.

행복한 그때를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튀어나온 닭
장미숙(erigeroni@naver.com)

두어 달 전, 고향집에 갔더니 마당에 닭 두 마리가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다. 엄마께 웬 닭이냐고 하자 외가에서 얻어온 것이라고 한다. 요즘 올케가 몸이 좋지 않아 키워서 몸보신을 시켜줄 요량이라는 것이다. 엄마에게는 한명 뿐인 며느리가 기운이 없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었던 모양이다. 워낙 며느리 사랑이 유별나신 분이려 엄마는 며느리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닭을 직접 키우고 계신 것이다.

닭이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집에서 기르는 닭을 보니 몇 년 전 일이 생각났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던 사건은 바로 남동생과 관련된 것이다.

동생은 거의 이십여 년 가까이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데 독자에다가 장손이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은 물론, 친척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외국에 살다보니 시골에 자주 갈 수 없어 친척들에게는 더욱더 귀한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해 명절, 동생은 고향에 가게 되었고 명절을 지내고 친척집에 들러 연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시 조카들 옷을 꺼내려고 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동생은 기절초풍

할 일을 만나고 말았다. 트렁크 안에는 도톰한 붉은 벼슬을 위엄 있게 달고 부리가 날카로운 커다란 장닭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쇼핑백에 머리만 내놓고 묶여 있는 닭을 본 동생은 이게 뭘 일인가 싶어 한 동안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한다.

남동생은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했다.

“엄마, 트렁크 안에 뭘 닭이 있잖아요?”

“아! 그거? 아니 느그는 몰랐냐? 느그 작은집 당숙이 어제 말도 안하고 닭을 잡아 부렸으니까? 근게 느그가 아까 가면서 작은집에 안 들렀냐. 그때 할머니랑 당숙 용돈을 드렸담서? 근디 암만해도 줄게. 없다고 닭을 한 마리 준다더니 산 늬을 그냥 차에 넣어부렸는갑다. 시상에... 그걸 어즈게 묵으라고... 느그 당숙이 그러고는 기냥 말도 안했는갑다. 그나저나 그 닭이 장닭이라 난리를 칠터인디 어즈게 가가 영.”

연유인 즉은 그렇게 된 것이었다. 작은집에 갔던 동생은 할머니와 당숙께 용돈을 드렸고 용돈을 받은 게 고마웠던 당숙은 줄게 없었던지 뒤 앞에 놓고 있던 닭을 한 마리 산채로 잡아 동생이 방에 있는 사이 차 트렁크 속에 넣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느닷없이 산 닭을 싣고 서울에 올라온 동생은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고 한다. 생선 닭을 잡아본 경험도 없고, 아파트에서 닭을 잡자니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뒤겨떡을까 하는 생각으로 닭을 들고 통닭집

에 갔더니 통닭 집 아줌마가 놀라서 기절초풍을 하며 “위메 아저씨 징허기도 해라. 이걸 어떻게 잡아서 튀긴다요? 내가 통닭집을 몇 년 했지만 생닭 들고 오는 사람 처음 보네. 아이고메 무시라. 참말로.”

결국 동생은 닭을 그날 잡지 못하고 커다란 상자에 담아 베란다에 그냥 놓아두고 잠이 들었다고 한다.

고요한 밤, 밤하늘 별들도 숨죽인 채 한창 단잠을 자는데 “꼬끼요!”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린 건 새벽녘. 장닭은 자신이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에 갇혀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맘껏 화를 치고 만 것이다. 덕분에 동생 식구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눈을 말뚱말뚱 거리며 깨어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장닭 사건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도시에서 닭을 보기 쉽지 않은지라 조키들은 닭이 무척 신기했던지 박스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홀랑강 다 뜯어서 닭을 탈출시켜버리고 만 것이다. 닭도 온순한 닭이 있지만 시골에서 놓아기른 장닭은 크기도 크려니와 사납기까지 한데 아이들이라 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다.

저녁 내내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까 탈출을 하게 된 닭은 그야말로 제 세상 만났듯 그 큰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대로 앞으로 돌진을 했고 슈퍼맨처럼 훌쩍 날아 거실로 잠입한 닭과 아이들의 승바꼭질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사람보다 닭이 더 놀랐을 것이다. 평화롭게 살던 공기 맑은 시골에서 누군가에게 잡혀 차 트렁크에 갇히더니 또 킁킁한 박스 속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으니 그 닭이 정상인 게 더 이상하다. 그래서 닭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동생은 도대체 닭을 어찌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던 장인어른께 닭을 드리기로 한 것이다. 시골 닭이니 보신용으로선 그만이라 장인어른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다시 트렁크에 닭을 싣고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 뎀보신하라고 드렸더니 장인어른께서 우리 사위가 최고라며 아끼던 더덕주까지 한 병 주셨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엄마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엄마께서 동생에게 “어찌 닭은 잡아서 묵었냐? 맛있었제? 그게 육질이 쫄깃하고 겁나게 맛있었을 거여... 작은 집에서 닭을 놓아길러 가지고 사방천지로 돌아댕김서 좋은 것만 묵고 뎀진 닭이라 완전 보신용이제. 지렁이도 수없이 잡아 묵었을 것이다. 겁나게 힘이 좋았을텐디 어찌케 잡았냐? 안도 안 주는데 할무니가 너를 원체 좋아하기 뎀시 잡아준 것이여. 그게 십오 만원은 죽히 될 것이구만. 난중에 할무니께 고맙다고 인사드려라.”

후유: 동생은 한숨을 깊이 내리쉬고는 엄

마에게 그간의 사정은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장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거짓말이란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이고 결국 엄마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크게 섭섭해하지는 않았다. 대신 동생에게 다시는 산 닭을 그대로 잡아주는 일도 없게 되었다.



이게 뭐지?

손영리(dsoniii@naver.com)

안녕하세요. 닭과 관련한 재밌고도 약간은 엽기적인 추억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웃으시라고 글을 써 봅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한 나이라서 언제나 배가 고팠고, 고기를 좋아할 때라서 저희 집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치킨을 시켜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먹고 남아서 다음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먹는 식은 치킨의 맛도 나름의 묘미라서 일부러(?) 안먹고 다음날 먹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집에 남은 치킨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름방학을 계기로 초과치료를 다녔는데요, 그날은 하필 마취도 하고 한참동안 발가락 끝까지 뻗뻗하게 긴

장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집에 오니 허기 지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절절히 느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취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식탁을 보니 허기의 구원자인 치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얼씨구나! 하고 맛도 모르면서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실 마취한 상태라 맛이 잘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맛나게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부위가 잘 씹히지 않아서 '이게 뭐지?' 하고 더 꼭꼭 씹어 삼키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삼켜지지도 않았지요. 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제 혀는 감각은 완전히 마비되고 그냥 움직일 수 있었으니 정체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5분 가량을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뱉어내야겠다 싶어서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혀를 잘근 잘근 씹어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제 혀까지 낚낚 먹으려고 했던거지요. 제가 좀 더 집요했다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때때로 그 얘기를 하면 다들 경악하면서 웃어버립니다.



엄마와 닭백숙

김명숙(san8good@naver.com)

엄마가 딸만 내리 3명을 낳고 또 임신을 하였는데요. 어쨌든 임신이 되었고 없는 살림이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죽어라 일만 하셨대요.

엄마가 딸을 셋이나 낳을 때 큰집에 큰 엄마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네요. 큰 엄마가 닭 백숙을 해 놓았다고 해서 엄마가 갔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닭이라고 생긴 고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말이 닭백숙이고 닭고기 우린 물이랑 밥알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하더군요.

쌀도 귀하고 닭은 더더욱 귀한 시절이라 엄마는 임신 중에 얼마나 닭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닭백숙이라는 말에 체면도 불구하고 한 다름에 달려갔더니 완전 대 실망이었지요.

밥 알 몇 개가 둥둥 떠 있는 닭백숙이라니... 혹시나 해서 손가락으로 아무리 뒤져도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닭백숙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에휴...

그 이야기를 엄마가 칠순이 훨씬 넘어서 하더라고요. 딸집이라고 올라 오셨길래 삼계탕 잘하는 집에 가자고 했더니 삼계탕을 앞에 두고 머뭇머뭇하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 듣고 엄마도 나도 한동안 멍하니 삼계탕을 먹지 못했지요.

엄마 생각엔 큰 엄마가 임신을 못하는 상태에서 할머니가 엄마 먹으라고 닭백숙을 끓이라고 하니 화가 났나봐요. 큰 엄마는 임신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동서를 챙겨 주라고 하니 샘도 나고 큰 엄마도 닭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는지요.

고기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물만 가득한 닭백숙에 대한 엄마의 추억이 생각나서 응모합니다.

아~참, 네번째 임신한 엄마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소원대로 손자 하나 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한 치킨**
한주용(8ydragon8@naver.com)

가족사를 치킨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희 가족과 치킨은 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아버지가 있었죠. 치킨이 오래 전부터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었지만 그 중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사 오시는 아빠의 치킨은 지금까지도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켄터키’라고 불리면서 상당히 친근한 이미지로 떠올라곤 했습니다.

가족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생일일 때에는 어김없이 치킨이 등장하곤 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가족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이후 직장이 아예 없어져 아버지는 한동안 지금의 직장을 구할 때까지 힘들어 하셨죠. 설상가상으로 3층 높이에서 일을 하다 추락해서 왼팔이 심하게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물리치료를 병행해 지금은 온전히 생활하고 계시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치킨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안 형편으로 인해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김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죠. 저는 울며 아버지가 계실 만한 곳을 찾으려 돌아다녔답니다. 며칠 뒤에 돌아오셨을 때에는 초췌해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른 손에는 치킨 한 봉지와 함께 말이죠. 어머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와 동생은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사주신 치킨을 먹으며 가족이 함께 먹을 시간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현재 아버지가 일하시는 직장은 지금까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의 아버지가 있게 해준 곳이죠. 사장님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이어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척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직책은 비록 낮지만 무척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버지가 일하시는 직장엔 치킨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